

첫 단추 잘 끼운 클린스만호, 이번에는 중국 원정이다

수비적인 운영하는 팀 깨는 방법 체득
손흥민·이강인·황희찬 등 공격진 골맛
거친 경기 예상...“우리 것만 잘하면 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3년 마지막 A매치 유종의 미를 노린다. 11회 연속 월드컵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중국을 상대로 예선 2연승을 꾀한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1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산전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둔 한국은 C조 1위를 기록 중이다. 같은 날 중국이 태국 원정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은 3점으로 같지만, 득점과 다득점에서 앞서 순위표 최상단에 자리했다.

이로써 9월, 10월에 이어 A매치 5경기 연속 무패(4승1무)를 달린 한국은 2023년 마지막 A매치인 중국전에서 유종의 미를 정조준한다. 클린스만호는 싱가포르전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아시아 강호인 한국을 상대로 라인을 깊게 내려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을 무너트리는 방법을 체득했다.

꾸준하게 횡패스와 전진패스를 섞으면서 상

대 라인을 흔들다 보면 결국 체력적으로 지친 상대가 틈을 보인다. 이때 정확하면서도 빠른 패스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양 날개에 위치한 황희찬(울버햄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측면 수비로 나선 이기재(수원삼성), 설영우(울산현대)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또 중앙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정승현(울산)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달하는 롱패스도 좋은 무기라는 걸 확인했다.

아울러 황희찬, 이강인뿐 아니라 손흥민(토트넘),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리치시티) 등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물 오른 경기 감각을 이어갔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전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선수들의 정신력도 남다르다. 중국은 유독 거친 플레이로 상대팀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팬들 특유의 강성 응원과 편파 판정 우려도 있다.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다수 역습한 상황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과 선수들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팬 오픈트레이닝에서 훈련하고 있다.

을 맞을 수도 있지만,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달랐다.

“주장” 손흥민은 싱가포르전 이후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전술일 수 있다. 휘발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라고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던 김민재도 “(원정팀이었던) 싱가포르도 만만치 않게 거칠었다. 우리도 중국에 (원정팀으로) 가면 똑같이 경기가 될 것”이라며 “수비에서부터 거칠게 하면

경기가 편해질 것이다”며 초반 기선 제압을 예고했다.

한편 대표팀은 19일 오전 8시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적지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 뒤, 중국전을 치른다.

뉴스

김도영, 2년만에 유니폼 판매왕 등극

고졸 2년차...제2의 이종범 닉네임 걸맞게 가파른 성장세 보여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유니폼 판매왕에 올랐다.

KIA는 올해부터 구단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샵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관중이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짝잡한 판매수익을 올렸다. 판매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의 유니폼이다. 관중들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일상화 됐다. 올해도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렸다.

KIA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2년 차 김도영이다. 챔피언스필드에서 김도영 유니폼이 입은 관중들이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그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직 고졸 2년차라 기량이 만개하지 않았지만 제 2의 이종범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개막 2경기만에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으나 복귀 이후 공수주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규정타석은 실패했으나 385타석 타율 3할3리 7홈런 47타점 72득점 25도루 OPS(장타율+출루율) 0.824의 우등성적을 올렸다. 비를 맞는 얼굴 사진을 곁들여 ‘그런 날 있잖아’라는 감성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슬비기자

2위는 아직 2년 차를 맞는 해결사 나성범이 차지했다. 부상으로 개막전에 나서지 못했으나 6월 후반 복귀해 3할6푼5리 18홈런 57타점 OPS 1.098의 압도적 타격을 펼쳤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와 성실한 훈련태도가 팬들의 높은 박수를 받았다. 전반기까지 1위를 달렸던 양현종은 김도영과 나성범이 복귀해 활약하는 통해 판매순위 3위를 차지했다.

슈퍼루키 운영철도 당당히 4위에 올랐다. 귀여운 외모와 스마일 표정으로 여성팬들을 사로잡아 만든 효과로 풀이된다. 당연히 실력으로 순위를 만들어냈다. 풀타임으로 뛰며 10승을 넘볼 정도로 투구 능력이 뛰어났다. 정교한 제구와 변화구 구사력을 앞세워 8승을 따냈다. 팬들의 높은 응원을 받으며 판매 4위에 랭크됐다. 5위는 2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은 이의리가 차지했다.

2022시즌 유니폼 판매왕은 나성범이었다. 6년 150억 원에 FA 계약을 맺고 고향 팀에 입단해 큰 인기를 누렸다. 2위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복귀한 양현종이 차지했고 루키 김도영이 3위에 올랐다. 김도영은 입단 2년만에 해결사와 대투수를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했다. 4위는 이의리, 5위는 김선빈이었다.

최근 야구장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KBO리그가 800만 관중을 회복했다. 기존 스타 뿐만 아니라 새로 입단한 유망주들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도영이 2년 만에 단숨에 1위를 차지한 이유이다. 유니폼에 선수들의 이름을 새기면 로열티(5%)가 발생한다. 구단측은 구체적인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도영도 두드러진 로열티를 챙기게 됐다.

피겨 김채연,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4위...메달 좌절

함께 출전한 유영, 쇼트서 4위까지 올랐으나 총점 168.14점 8위로 밀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김채연(17·수리고)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김채연은 19일(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포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4.42점, 예술점수(PCS) 61.81점, 감점 1점 등 115.23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66.19점과 합해 총점 181.42점을 받은 김채연은 4위에 올랐다. 3위 엠베 글렌(미국·185.39점)에 3.97점 차로 밀려 메달이 좌절됐다.

일본 선수들이 금, 은메달을 휩쓸었다.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가 205.21점으로 1위, 스미요시 리온이 190.2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자신의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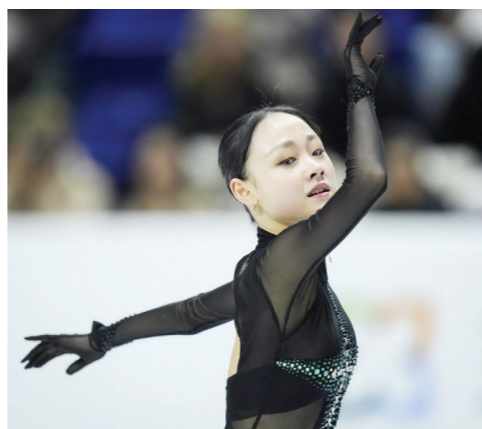
던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던 김채연은 이번 대회 4위로 그랑프리 랭킹 포인트 9점을 추가, 22점이 돼 중간 순위 6위를 달렸다.

이번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일정을 모두 마친 김채연은 이달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하는 6차 대회 결과에 따라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시즌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선수들은 한 시즌에 최대 2개의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두 차례 그랑프리 성적을 합해 상위 6명에게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번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월 7~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김채연은 점프에서 연달아 실수가 나오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함께 출전한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47.38점, PCS 59.30점, 감점 2점으로 104.68점을 얻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3.46점으로 4위에 자리했던 유영은 총점 168.14점으로 8위가 지 밀렸다.

뉴스



LG 오지환·KIA 박찬호,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

포수 양의지·1루수 박병호·2루수 김혜성·3루수 허경민 수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LG 트윈스 오지환과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나란히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올해 제정된 KBO 수비상의 포수, 내야수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오지환과 박찬호는 총점 합산 결과 87.5점으로 동률을 이루 공동 수상했다.

오지환은 투표 점수 75점, 수비 점수 12.5점을 기록했고, 박찬호는 투표 점수 66.67점에 수비 점수 20.83점을 얻었다.

박성환(SSG 랜더스)이 79.17점으로 3위가 됐다.

KBO 수비상은 수비 능력만을 평가해 포지션별로 수여한다.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각 구단 당 11명씩 총 110명의 투표로 정하는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수상자를 정한다.

지난 17일 1차로 투수, 외야수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고, 이날 포수와 내야수 등 나머지 부문 수상자를 공개했다.

포수 부문에서는 KBO리그 최고 포수로 손꼽히는 양의지(두산 베어스)가 수상자로 뽑혔다.

양의지는 투표인단으로부터 34표를 받

아 투표 점수 75점을 획득했고, 포수 무관 도루를 제외한 도루 저지율과 블로킹, 공식 기록 등 포수 수비 기록 점수에서 17.41점을 받아 총점 92.41점으로 포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80.8점을 받은 박동원(LG)과 70.54점의 김태균(KIA)이 각각 2, 3위였다.

1루수 부문에서는 박병호(KT 위즈), 2루수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3루수 허경민(두산)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박병호는 투표에서 56표를 득표하며 75점의 투표 점수를 획득했다. UZR(Ultimate Zone Rating·수비 범위를 고려한 종합수비 지표)과 공식 기록이 반영되는 수비 기록 점수에서는 25점을 기록했다.

투표, 수비 점수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박병호는 총점 100점으로, 오스틴 딘(LG·68.75점)을 큰 차이로 제쳤다.

2루수 수상자 김혜성은 투표 점수 75점(64표), 수비 기록 점수 20점으로 총점 95점을 획득했다. 허경민은 투표 점수 75점(31표), 수비 기록 점수 8.33점 등 83.33점을 얻었다.

수상자들에게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진행되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뉴스